■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46〉

天下奇才也!

천 하 기 재 야

천하의 기이한 재주꾼이로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다. 자치통감을 강독하였던 몇몇 선생님들이 스승의 날이 다가오자 두어 시간 함께 강독을 하고 저녁이나 하자고 연락해 왔다. 지난 7~8년 동안 매주 같이 자치통감을 강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년이나 중단했으니 그 추억이 있었던 모양이다. 오랜 만에 만나는지라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달(司馬仲達)을 도망치게 하였다'라는 말이 떠올라서 자치통감에서 이 부분을 뽑아 읽기로 하였다.

이 일화는 제갈량은 죽으면서도 사마중달을 물리칠 작전을 세워 놓았을 정도로 지모(智謀)가 출중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에 있는 내용이다. 사마중달은 사마의(司馬懿)의 자(字)로 후에 촉한(蜀漢)과 위(魏), 오(吳)를 통일하고 진(晉)왕조를 개창한 사마염(司馬炎)의 할아버지이다. 이 일화만 보면 제갈량은 대단하고 사마의는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결과를 추적해 보면 사마의가 속한 위(魏)는 제갈량이 속하였던 촉한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사마염(司馬炎) 때까지 오(吳)를 정복하였고, 다시 위(魏)로부터 선양(禪讓)을 받아 삼국(三國)을 통일한 새 왕조 진(晉)을 창건하는 밑거름을 닦았다. 그러하니 어찌 제갈량을 사마의의 업적에 비하겠는가!

사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달을 물리쳤다는 일화는 제갈량이 위(魏)를 정벌한다고 군사를 동원하여 오장원(五丈原)에 왔을 때에 위(魏)의 장군 사마의(司馬懿)와 1백여 일을 대치하였던 시기에 나왔다. 이때 제갈량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잘 못 철군을 하다가는 촉한 군(軍)이 전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미리 안전하게 철군할 방법을 지시해 두었다.

그 후 제갈량이 죽자 촉한 군은 그가 세워 놓은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후퇴하게 되었고, 이를 본 사마의가 뒤를 쫓았다. 그런데 촉한군이 별안간 깃발을 돌려 북을 울리며 뒤쫓는 사마의의 군사를 향하여 공격할 듯 행동하였다. 사마의는 제갈량이 죽은 줄 몰랐으니 그가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일시적으로 군사를 후퇴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마의는 잠시 물러서서 제갈량이 죽은 것을 알고 다시 촉한군을 추격하였지만 이미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돌아와 제갈량이 세웠던 영채(營寨)의 터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제갈량의 기이한 진법(陣法)을 발견하고 이미 죽은 제갈량을 향하여 '천하의 기인(奇人)이로다!'라고 감탄을 하였다. 사마의까지 이렇게 칭찬한 것으로 보아 제갈량은 확실히 재주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제갈량을 재주꾼이라 평가하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다. 우리말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던가? 국가를 책임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주가 국가를 위하여 어떻게 발휘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결국 제갈량의 꾀는 크게 발휘되지 못한 채 죽었고, 그의 촉한은 사마의가 이끄는 위나라에 항복하였으며 유비의 아들인 촉한의 후주(後主)는 위에 포로로 잡혀갔다. 반면에 죽은 제갈량에게 도망했다고 조롱받는 사마의는 그가 닦아 놓은 토대 위에서 그의 손자는 새로운 왕조 진(晉)을 개국(開國)하였다. 최후의 승리자는 아무리 보아도 사마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결과가 우연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승패와 그 실마리는 오장원에서 사마의와 제갈량이 100일간 대치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장원에서 제갈량과 대치하던 사마의는 성문을 완전히 닫고 제갈량의 진출(進出)을 막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겁쟁이처럼 용감하게 나와서 제갈량과 자웅(雌雄)을 겨뤄보려 하지 않았다. 제갈량의 입장에서는 사마의의 군사가 성 밖으로 나와 싸우게 되면 공격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인데, 꿈쩍도 않는 사마의 앞에서 천하의 제갈량도 싸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하릴없이 100일을 보냈으니 결국 주도권은 사마의에게 있었던 셈이다.

제갈량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마의를 자극하여 화를 나게 해서 화 낌에 군사를 끌고 나와 싸우게 하려고 꾀를 냈다. 제갈량은 사마의에게 부인의 복장과 건괵(巾幗)이라는 여자들이 쓰는 수건을 선물로 보냈다. 이는 사마의를 사내대장부가 아니고 여자처럼 겁내고 있다고 조롱한 것이었다.

장군으로서 제갈량에게 여자 같다는 조롱을 받은 사마의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제갈량이 그를 전장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을 파악한지라 그 꼬임에 넘어갈 수는 없었다. 사실 꾀를 냈는데 상대방에게 들키는 꾀는 이미 꾀가 아닌 것이다. 상대방의 꾀를 아는 순간 그것에 대처할 방법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마의가 제갈량의 꾀를 알아차렸으니 어찌 대처했을까?

제갈량에게서 건괵을 받은 사마의는 짐짓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그보다 먼저 나가 싸울지 말지를 황제 조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조비에게 편지를 보냈다. 왜 사마의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제갈량도 알았고, 위의 황제인 조비도 알았다. 왜냐하면 전장(戰場)에서 장군이란 공격하든 수비하든 전적으로 장군에게 있는 것인데, 짐짓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사람을 보냈으니 이는 싸우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이었다.

사마의의 뜻을 안 조비는 사자(使者)에게 부절(符節)을 들려 보내면서 사마의를 통제하라고 하였다. 이를 본 제갈량도 사마의가 군사를 출전시킬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제갈량이 사마의의 진의를 파악했지만, 사마의가 취한 이 조치의 목적은 수하 장병들에게 '내가 제갈량을 무서워하여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사마의는 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니 제갈량에게는 '멋진 명군'을 한 셈이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제갈량이 사마의에게 사자를 보냈다. 사마의를 염탐하려는 것이었을까? 제갈량의 사자를 맞은 사마의는 그와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었다. 전쟁 마당에 있으면서도 전쟁에 관계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승상께서는 편안하신가?'라고만 하였다.

이에 제갈량의 사자는 자기 나라 승상 제갈량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승상께서는 식사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재판 서류가 10판(板) 이상인 죄인의 범죄는 일일이 다 살피십니다.' 이 말 속에는 제갈량을 형벌을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자랑이 섞인 것이다.

그러나 그 자랑을 들은 사마의는 제갈량의 사자가 돌아간 다음에 자기 수하들에게 말하였다. '얼마 안 되어 제갈량은 죽을 것이다. 일은 많이 하면서 먹는 것이 적으니 죽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사마의는 제갈량의 사자가 한 대수롭지 않은 말 속에서 적장(敵將)의 상태를 간파한 것이다. 한 수 높은 지혜라 할 것이다.

제갈량의 꾀는 사마의에게 읽혔는데 사마의는 꾀를 내지 않고도 적을 꿰뚫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하니 사마의가 제갈량이 죽으면서 세워 놓은 작전계획을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달을 물리쳤다.'는 속언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평가일 뿐이다. 오히려 설사 일시적으로 물러난다고 하여도 만사 튼튼하게 지키면서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마의의 지혜가 빛나는 대목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했고, 여전히 여야의 대립은 치열하다. 그런데 이들이 싸우면서 내놓는 수를 멀찍이 떨어져 있는 보통 백성들의 눈에도 읽힌다. 부동산 3법과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받는 과정에서 보인 양당(兩黨)의 태도는 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공방이었다. 그러니 이 꾀는 잔꾀이지 지혜는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속셈이 읽혔기 때문이다. 언제 가야 우리의 장래를 책임진 정치인들이 범인(凡人)들이 감히 속내를 볼 수 없는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게 될까?

안동권씨安東權氏 사성賜姓유래

권삼수 한의학자
(權三壽, 좌윤공파, 37世)

사전에서 權 자字의 여러 가지 뜻을 고증考證해 보면,

명사(名詞)로서 ①나무 이름. ②노란색. 황색. ③저울의 추. 저울. ④권력. 권병(權柄). ⑤위세. 세력. ⑥모책. 계모(計謀) ⑦권도權道 :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 경 '經'의 상대어. ⑧임시직. 또는 대리직. ⑨북두칠성의 넷째별. ⇨천권天權. 북두칠성의 북쪽에 있는 별자리 이름. ⇨헌원軒轅. ⑩방편. ⑪광대뼈. 또는 볼. ⑫처음. 시작. ⑬姓. ⑭떨기로 자라는 나무. ⑮제사 때 올리는 봉화. 등이 있으며, 동사(動詞)로서는 ①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 ②가늠하다. 헤아리다. 비교하다. ③고르다. 평형을 이루다. 또는 고르게 하다. ④소중하다. 귀히 여기다. ⑤잡다. 장악하다. ⑥획책하다. 충당하다. 담당하다. 등의 뜻이 있으며, 부사(副詞)(로서 ①우선. 잠시. 등의 뜻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안동권씨安東權氏 '權'자字의 본뜻은 명사로서 ⑦번의 내용인 권도權道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권문의 최초 족보인 성화보成化譜에서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姓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리 안동권씨의 최초 족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족보의 남상(濫觴)인 성화보成化譜는 양촌공陽村公의 외손자인 서거정徐居正이 조선 성종 7년(1476·성화成化 12년)에 편집한 족보이다.

서거정은 조선 전기의 문신·학자(1420~1488)로서, 자字는 자원(子元)·강중(剛中)이고, 호號는 사가정(四佳亭)·정정정(亭亭亭)이며 시호는 문충(文忠)인데, 45년간 여섯 왕을 섬겼으며,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했으며, 해동海東의 고문진보古文眞寶라고 할 ≪동문선東文選≫을 편집하였다. 또 왕명을 받들어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국역했다. 학문이 매우 넓어 천문·지리·의약·복서·성명·풍수에까지 관통하였다. 그의 외숙부인 권람(權擥) 할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안동권씨安東權氏 족보인 성화보成化譜를 편찬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시조始祖 할아버지의 성손姓孫으로서 최소한 성姓이 '權'으로 된 바른 뜻을 알아야 함에도 거의 모르는 것 같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이에 제가 고전 문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의 부족함이 많지만 후손된 사람으로서 그 대강을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서거정이 지은 성화보成化譜 서문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사성유래이다. 그러나 글의 내용이 고전적인 내용이라 사용된 자의字義들을 깊이 구찰하지 않으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려조왈麗祖曰 행능幸能 병기달권炳幾達權 내사성권乃賜姓權。 자구해字句解

◈려조麗祖는 고려 태조 왕건을 가리키는 말.

◈행능幸能의 행幸은 우리 시조 할아버지의 휘자이니 따라서 "행幸은 ~~에 능하다"는 말.

◈병기달권炳幾達權은 기미에 밝고 권도權道를 통달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

◈병기炳幾의 병炳은 명明과 통하여 밝다는 뜻이며, 기幾는 기미幾微의 준말로서 일이 되어 가는 낌새를 말하고,

◈달권達權의 달達은 통달하다. 꿰뚫다의 뜻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權'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수단으로서 권도權道·권변權變·권시權時·권의權宜"라고도 한다.

'權'의 상대되는 말은 '경經'인데, 경상적으로 일정불변의 원칙을 이르는데, 이 두 말을 아울러서 '경권經權'이라고 표기하여 비교 설명한다. 좀 부연하여 설명하면 세상만사의 진행이란 상도常度를 잃고 천변만화千變萬化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에만 구애되어 변통할 줄 모른다면 도모하는 일이 결코 성공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곧 제수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예절에서의 원칙 때문에 급류에 떠내려가는 제수를 건져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리고 임시응변臨機應變을 실천함에는 먼저 명철한 식견識見으로 적확的確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적절한 시기에 용기있게 과감한 실천實踐이 뒤따라야 비로소 권도權道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 때를 놓치면 결국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내사성권乃賜姓權은 그래서 성姓을 權으로 하사하였다는 말.

려조왈麗祖曰 행능幸能 병기달권炳幾達權 내사성권乃賜姓權。

이를 다시 정리하여 설명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말하기를 "행幸자 시조 할아버지는 기미에 밝고 권도權道를 통달하기 때문에 성姓을 權氏로 하사하였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위대하신 시조 할아버지의 성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러한 의미 깊고 원대遠大한 내용을 밝힐 수 있어야 비로소 양반 안동권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22年 5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04. 28.~05. 27.
총 납부자 27명

총 900,000원
(이름순) 단위:원

권종덕(인천)	30,000	권영국(옥천)	30,000	권용구(태안)	30,000
권광규(경기오산)	30,000	권영식(서울강북)	30,000	권용대(안동)	30,000
권길웅(상주)	30,000	권영태(구미)	30,000	권욱형(원주)	30,000
권덕규(안동)	30,000	권오곤(진주)	30,000	권장승(서울성동)	30,000
권두삼(김제)	60,000	권오봉(대구)	30,000	권재덕(진주)	30,000
권병문(서울금천)	30,000	권오정(예천)	30,000	권재모(산청)	30,000
권삼영(세종)	90,000	권오학(포항)	30,000	권중섭(수원)	30,000
권순채(서울송파)	30,000	권오현(광주)	30,000	권태경(보령)	30,000
권순한(서울강남)	30,000	권오현(서울구로)	30,000	권태채(대구)	30,000

안동 權氏 마·창·진 종친회 합동 월례회 안내

족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동 權氏 마·창·진 종친회, 권문발전회, 청장년회 합동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 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 1동
할매낙지 마산본점 ☎055-255-6788

2022년 6월 1일

안동權氏 마·창·진 종친회장 권 태형